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30.(일) 11:00,
(지면) 2024. 7. 1.(월) 초간

배포 2024. 6. 28.(금) 오후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여름철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

- 7. 1.(월)부터 7. 12.(금)까지 12일간 144척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점검에서는 연안여객선 구명조끼 등 안전비품과 시설·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승·하선 절차 준수 및 차량 선적 관련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특히, 올해 여름은 덥고 해수면 온도도 높아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점검반에서는 태풍 내습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기간 중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여름철 특별교통기간이 시작되는 7월 25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개선하여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여름 휴가 기간에 연안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유윤진 (044-200-5738)

□ 추진 배경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수부 고시)에 따라 여객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연 5회)에 전체 연안여객선 대상으로 특별점검 추진
 - * 설날·하계·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 및 봄철 행락철(매년 5월 1일 기준), 겨울철(매년 12월 1일 기준) 시작 10일 전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24. 7. 1.(월) ~ 12.(금) / 12일간
- (대상 선박) 연안여객선 101항로 149척 중 144척
 - * 관리선박 중 5척은 선박정비, 계선 등으로 점검에서 제외
- (점검반) 각 지방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 해경서, 지자체, 검사기관(KOMSA, KR), 국민안전감독관 등

□ 주요 점검내용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 사업자 및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선내 비상훈련 실시 등
- 여객 증가에 따른 승하선 절차 준수, 구명조끼 등 안전비품 상태, 태풍 내습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집중점검

□ 향후 추진계획

- 점검 결과 결함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기한부시정 조치하고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 출항정지 처분
 - * 기한부 시정 조치사항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시작(7.25.) 전까지 시정 완료